



Original Article

Health Factors Related to Management of Menopause among Climacteric Women

Song, Ae-Ri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와 관련된 건강요인에 대한 연구

송 애 리¹⁾

1) 진주보건대학 부교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between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in climacteric women.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in and around Jinju city, and each participant gave consent for the research. A total sample of 250 middle-aged women aged 40 to 60 years were chosen for the study, of which 157 women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used for the analysis. Data was collected from Jan 1st to Mar 31st, 2004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questionnaires for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Result:**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significantly related to management of menopause were occupation and religion. The characteristic variable significantly related to urinary incontinence was age.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significantly related to sexual satisfaction were religion, economic status, and frequency of delivery.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of menopause and sexual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 It is hoped that the above

findings will stimulate health promoting programs for climacteric women.

Key words :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Sexual, Satisfaction, Women

서 론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다. KNSO (2004)는 2004년 12월 20일에 발표한 '2002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73.38세, 여자는 80.44세로 파악되었다. 1971년만 하더라도 남자 58.99세, 여자 66.09세로 남자는 환갑을 넘지 못했고, 여자는 칠순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서 남녀 모두 약 14년씩 수명이 늘어났으며, 여성에 있어 갱년기에 진입하는 나이인 45세 여자의 경우 앞으로 36.9세를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갱년기 이후의 삶이 예전에 비해 길어짐으로 인해 갱년기 및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위한 많은

투고일: 2004년 11월 8일 1차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3일 2차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최종심사완료일: 2004년 2월 2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Ae-Ri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Sang Bong Seo Dong, Jinju city Kyeong Sang Nam Do 660-757, Korea

Tel: +82-55-740-1837 Fax: +82-55-743-3010 E-mail: jinjumam@chc.ac.kr

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로 많은 여성들이 고민을 하면서도 쉽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뇨생식기 문제 및 성 문제에 접근하여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갱년기에는 여성들의 난소기능의 감퇴로 난소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주로 비뇨생식기에 영향을 주고, 비뇨생식기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은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비뇨생식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게 된다. 그중 아주 빈번하게 호소하는 문제들로 골반근육의 약화로 복압 상승 시 발생하는 요실금 및 질 분비물 감소로 발생하는 질 건조로 인한 성교 곤란을 들 수 있다(Penn, Lekan-Rutledge, Joers, Stolley, & Amhof, 1996). Temml, Haidinger, Schmidbauer, Schatzl과 Madevsbacher (2000)연구에서는 요실금이 있는 여성의 65.7%가 요실금 상태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고, 이중 18.3%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25.1%의 여성이 요실금으로 인한 성생활의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요실금의 치료로는 수술요법, 약물요법, 행동요법을 들 수 있는데, 수술요법은 높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으나 침습적이고 환자의 실제 순응도가 낮으며(McCormick, Sheve, & Leahy, 1988), 약물요법은 일시적인 증상완화에 도움이 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Lee, 1994). 행동요법에는 골 저근 운동, 바이오피드백요법, 전기자극요법, 방광훈련, 자극배뇨요법, 질 cone 삽입 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요실금 환자의 54-74%정도만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Beckman, 1995). 따라서 갱년기 여성들이 효과적인 요실금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갱년기 동안에 수행하는 폐경관리가 요실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갱년기 증상으로 발생하는 질 분비물 부족으로 인한 질 건조는 부부 관계 시 통증을 유발하여 갱년기 여성들이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거나, 나빠지게 하며, 성 만족을 낮추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과 적극적으로 의논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였다(Song, 1997). 그러므로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실금과 성 문제 발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 만족 정도가 갱년기 여성들이 수행하는 폐경관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갱년기 여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 정도 등 특정변수를 중심으로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갱년기 여성의 일반적 및 산과 적 특성을 파악 한다
-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의 정도를 파악 한다.
- 갱년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갱년기 여성의 산과 적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일 중소 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의 갱년기 여성에게 일반 화 하는데 신중함을 기해야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 요실금 및 성 만족정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은 경상남도 J시 및 J시 주변 농어촌에 거주하는 만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여성을 편의 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 및 본 연구자가 훈련시킨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면접조사 및 자가보고 형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월 5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70부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15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폐경관리 측정도구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Song(1997)의 폐경관리 측정도구 17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5개영역인 활동과 운동 관리, 식생활 관리, 성생활 관리, 전문적 건강관리, 자가 조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항상 하고 있다’ 4점, ‘자주하고

있다' 3점, '가끔 하고 있다' 2점, '전혀 하고 있지 않다' 1점을 배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폐경관리를 잘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7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가 .85로 나타났다.

2) 요실금 상황 측정도구

요실금 관련 정보는 요실금 상황 질문지인 Henderickson (1981)이 개발하고 Lee(1994)가 수정 보완한 긴장성 요실금 측정도구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항상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가끔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실금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요실금 정도는 경증(0-20점), 중등중(21-40점), 중중(41-60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1994)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계수가 .71이었으며,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계수가 .94 이었다.

3) 성 만족 측정도구

Kim, Chang과 Kang(1997)이 20대에서 60대 사이의 기혼여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성생활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 만족 도구 17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전혀 아니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Alpha계수가 .91로 나타났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계수가 .93 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폐경관리, 요실금 및 성 만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 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46-50세 사이가 56.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48.4%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f(%)
Age(years)	40-45	24(15.3)
	46-50	89(56.7)
	51-55	32(20.4)
	56-60	12(7.6)
Education	Elementary	26(16.6)
	Middle school	49(31.2)
	High school	75(48.4)
	College≥	6(3.8)
Occupation	Yes	88(56.1)
	No	69(43.9)
Religion	Catholic	10(6.4)
	Christian	18(11.5)
	Buddhist	99(63.0)
	None	30(18.1)
Economic status	Upper	2(1.3)
	Middle	125(79.5)
	Low	30(19.2)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51(32.5)
	Ordinary	68(43.3)
	Bad	38(24.2)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대상자 중 직업이 있는 경우가 56.1%이었으며, 종교는 불교가 63.0%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정도가 7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3.3%로 가장 많았다<Table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출산 횟수가 1-2회인 경우가 48.4%, 3-4회가 47.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질 분만 횟수는 0-2회가 53.3%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분만

<Table 2>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f(%)
Frequency of delivery	1-2	76(48.4)
	3-4	75(47.8)
	5≥	6(3.8)
Vagina delivery	0-2	84(53.5)
	3-4	67(42.7)
	5≥	6(3.8)
Cesarean section	0	146(93.0)
	1	7(4.5)
	2	4(2.5)
Hysterectomy or oophorectomy	Yes	31(19.7)
	No	126(80.3)
Postpartum care(Shanhujori)	Good	16(10.2)
	Ordinary	103(65.6)
	Bad	38(24.2)
Menopausal status	Pre-menopause	121(77.1)
	Post-menopause	36(22.9)
Urinary incontinence	Mild(0-20)	132(84.1)
	Moderate(21-40)	22(14.0)
	severe(41-60)	3(1.9)

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궁수술 및 난소절제술의 경우 수술을 받은 경우가 19.7%인 반면, 받지 않은 경우가 80.3%이었으며, 산후조리정도에서는 산후조리를 보통으로 하였다가 6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폐경 상태는 폐경 전인 경우가 77.1%, 폐경 후의 경우가 22.9%이었다. 요실금은 경증이 84.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중등증이 14.0%, 중증이 1.9%의 순이었다<Table 2>.

2. 대상자의 폐경관리, 요실금 및 성 만족 정도

대상자의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 정도를 보면 대상자의

<Table 3> Descriptive results of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N=157)

Division	Mean ± SD
Management of menopause	2.06±0.42
management of exercise and activity	2.08±0.81
management of dietary	2.54±0.66
management of sex life	1.73±0.49
management of health by medical services	1.64±0.58
self control	2.30±0.50
Urinary incontinence	0.72±0.63
Sexual satisfaction	2.21±0.53

폐경관리 정도는 전체 평균 평점이 2.0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요실금 정도는 전체 평균 평점이 0.72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성 만족 정도는 4점에 평균 평점이 2.21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3.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 적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 정도 가운데 폐경관리는 직업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평균 1.99점, 직업이 없는 경우가 평균 2.14점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폐경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0, p=0.03). 종교는 천주교가 평균 2.26점, 기독교가 평균 2.10점, 불교가 평균 2.06점, 종교 없음이 평균 1.95점으로 천주교인의 경우 가장 폐경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17, p=0.04). 요실금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0세-45세가 평균 0.46점, 46세-50세가 평균 0.67점, 51-55세가 평균 0.74점, 56-60세가 평균 1.06점으로, 56-60세 군이 요실금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F=8.60, p=0.00). 성 만족은 종교와 경제적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의 경우 천주교가 평균 2.64점, 기독교가 평균 2.36점, 불교가 평균 2.16점, 종교가 없는 경우 평균 2.14점으로 나타나, 천주교인이 가장 성 만족 정도가 높은 것

<Table 4> Comparison of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Sexual satisfact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years)	40-45	24	2.04±0.53	0.05	0.46±0.37	8.61	2.33±0.64	3.08
	46-50	89	2.06±0.39	(0.81)	0.67±0.54	(0.00)	2.23±0.48	(0.08)
	51-55	32	2.10±0.47		0.74±0.56		2.15±0.55	
	56-60	12	1.95±0.34		1.06±0.88		2.03±0.53	
Education	Elementary	26	2.05±0.38	0.00	0.83±0.87	0.96	2.13±0.54	0.21
	Middle school	49	2.08±0.43	(0.95)	0.72±0.58	(0.32)	2.25±0.56	(0.65)
	High school	76	2.04±0.44		0.71±0.59		2.21±0.51	
	College ≥	6	2.11±0.41		0.54±0.23		2.23±0.47	
Occupation	Yes	88	1.99±0.43	-2.10	0.68±0.68	-0.871	2.20±0.56	-0.37
	No	69	2.14±0.41	(0.03)	0.78±0.57	(0.30)	2.23±0.49	(0.71)
Religion	Catholic	10	2.26±0.40	4.17	0.73±0.53	1.99	2.64±0.56	7.62
	Christian	18	2.10±0.34	(0.04)	0.49±0.37	(0.16)	2.36±0.48	(0.00)
	Buddhist	99	2.06±0.45		0.73±0.66		2.16±0.52	
	None	30	1.95±0.35		0.86±0.68		2.14±0.47	
Economic status	Upper	2	2.35±0.67	1.79	0.30±0.42	0.10	2.88±0.42	4.11
	Middle	124	2.07±0.41	(0.18)	0.73±0.64	(0.74)	2.23±0.51	(0.04)
	Low	30	1.98±0.48		0.73±0.63		2.07±0.54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51	2.15±0.34	2.94	0.58±0.41	3.22	2.29±0.48	1.09
	Ordinary	68	2.02±0.42	(0.08)	0.81±0.69	(0.07)	2.17±0.54	(0.29)
	Bad	38	2.00±0.52		0.80±0.76		2.18±0.55	

<Table 5> Comparison of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according to obstetric characteristics (N=1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Sexual satisfaction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Frequency of delivery	1-2	76	2.11±0.41	2.14	0.68±0.62	0.65	2.30±0.50	4.75
	3-4	75	2.01±0.44	(0.14)	0.79±0.68	(0.42)	2.14±0.54	(0.03)
	5≥	6	1.99±0.48		0.68±0.33		1.98±0.60	
Vagina delivery	0-2	84	2.09±0.44	1.37	0.69±0.68	0.43	2.28±0.49	3.24
	3-4	67	2.02±0.40	(0.24)	0.79±0.60	(0.51)	2.15±0.55	(0.07)
	5≥	6	1.99±0.48		0.68±0.33		1.98±0.60	
Cesarean section	0	146	2.07±0.43	2.19	0.73±0.62	0.26	2.21±0.54	0.01
	1	7	2.04±0.35	(0.14)	0.93±1.09	(0.61)	2.18±0.14	(0.92)
	2	4	1.71±0.42		0.37±0.16		2.21±0.24	
Hysterectomy or oophorectomy	Yes	31	1.97±0.38	-1.25	0.82±0.78	0.80	2.27±0.43	0.73
	No	126	2.08±0.43	(0.21)	0.71±0.60	(0.42)	2.20±0.54	(0.46)
Postpartum care (Sanhujori)	Good	16	2.12±0.53	0.04	0.72±0.75	0.39	2.28±0.90	0.00
	Ordinary	103	2.03±0.39	(0.83)	0.71±0.61	(0.52)	2.19±0.46	(0.65)
	Bad	38	2.10±0.47		0.81±0.68		2.24±0.49	
Menopause status	Pre-menopause	121	2.04±0.41	-0.98	0.79±0.63	-1.12	2.23±0.48	0.78
	Post-menopause	36	2.12±0.46	(0.33)	0.84±0.68	(0.26)	2.14±0.66	(0.44)
Urinary incontinence	Mild(0-20)	132	2.07±0.44	0.52	0.51±0.36	359.14	2.24±0.54	3.15
	Moderate(21-40)	22	2.03±0.38	(0.47)	1.73±0.30	(0.00)	2.09±0.42	(0.07)
	Severe(41-60)	3	1.88±0.10		3.04±0.64		1.84±0.56	

으로 나타났다(F=7.62, p=0.00). 경제 상태는 경제상태 상이 평균 2.88점, 중이 평균 2.23점, 하가 2.07점으로 경제상태 상이 성 만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4.11, p=0.04)<Table 4>.

대상자의 산과 적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폐경관리와 요실금은 산과 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 만족은 총 분만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분만횟수 1-2회의 경우 평균 2.30점, 3-4회의 경우 평균 2.14점, 5회 이상의 경우 평균 1.98점으로 총 분만 횟수 1-2회가 성 만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4.64, p=0.03)<Table 5>.

4. 대상자의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 정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과의 관계를 Pearson's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는 폐경관리와 성 만족이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and sexual satisfaction (N=157)

	Management of menopause	Urinary incontinence
Urinary incontinence	-0.09	
Sexual satisfaction	0.39**	-0.11

** P<0.01

정상관관계를 보였다(r=0.39, p<0.01)<Table 6>.

논 의

본 연구에서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 정도는 4점 척도에서 평점 2.06점으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Song(2001-a)의 평점 1.79점과 Yeo(2004)의 평균 2.13점과 Park, Lee와 Cho(2002)의 2.16점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갱년기 여성들의 폐경관리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음을 알수 있다. 특히 폐경 관리 영역 중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온 성생활 관리와 전문적 건강관리는 여러 연구(Song, 2001-a; Sung, 2002; Yeo, 2004)와 같은 결과로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갱년기 동안의 건강은 노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에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갱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는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방치 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 문제 발생 시 조기에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갱년기 동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생식기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성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시스템이 아주 부족하므로 이

러한 건강관리 접근 시스템 개발도 갱년기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갱년기 여성의 폐경관리 정도는 직업과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이 없는 군이 직업이 있는 군에 비해 폐경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eو(2004)의 직업이 없는 군이 농업이나 시간제군보다 폐경관리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갱년기 여성들이 직업이 없을 경우 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몰두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종교에 따른 폐경관리 정도는 본 연구에서 천주교인들이 폐경관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 불교, 종교 없음의 순으로 폐경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폐경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Song(1999), Song(2001-a), Lee, Chang과 Yoo(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인들을 교육시킴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종교 단체 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갱년기 동안 요실금 발생 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요도를 구성하고 있는 점막 하 정맥동의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을 위축시켜 요도를 수축하는 근육을 약화시켜 갑작스러운 복강 내 압력 증가 시 소량의 소변이 불수의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Penn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들의 요실금 정도는 5점 척도에 전체 평점 0.72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요실금 정도 차이에서는 56-60세 군이 요실금 정도가 평균 1.06점으로, 다른 연령 군에 비해 가장 요실금 정도가 높게 나타나, Kang(1996), Lee(1997), Lim(2001), Song(2001-b)이 연령이 많은 경우 요실금 유병 율이 증가하였다고 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갱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진입할수록 요실금 유병 율은 높아지므로(Kang, 1996), 갱년기에 요실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예방은 갱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요실금 관리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기혼 여성의 성생활은 부부간에 상호 지켜야하는 보편적인 가족관계의 필요조건인 상호보호, 돌봄, 배려, 경제적 부양, 책임의 배분 이상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하기가 어려운 중요 요소이다(Chang, 1989)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부부간의 성생활이 갱년기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감퇴로 비호르몬성의 문제중 하나인 질 건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즉 질 건조로 인하여 성교 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성 만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갱년기 여성의 성 만족은 4점에 전체 평점 2.21점으로, Chang, Kang과 Kim(1998)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2.51점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Lee, Kim과 Jeong(2000)의 3.16보다도 상당히 낮은 결과로 나타내어 갱년기 여성들이 다른 연령의 대상자들에 비해 성 만족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들은 다른 그룹에 속한 여성들에 비해 성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리와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나 Song(1997)의 갱년기 여성의 성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갱년기 여성들은 성적인 문제를 남편과 원활히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자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못하였으며, 부부간에 성문제로 인한 갈등 유발 시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부부관계를 가질 때 질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성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며, 심지어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회피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갱년기 동안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에 바탕을 둔 접근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갱년기 여성에 적합한 성교육 자료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자료 개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갱년기 여성을 위한 성교육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갱년기 여성을 위한 성교육 자료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종교에 따른 성 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 결과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성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안에서 살림만 사는 갱년기 여성들에 비해 종교 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종교적 모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성적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Chang(1989)의 연구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집단이 성생활에 보다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Park(2001)은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경제상태에 따른 성 만족의 차이에서는 경제상태가 상의 경우 가장 높은 성 만족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경제 상태 중, 하의 순으로 성 만족 수준을 나타내어 Chang(1989), Chang 등(1998)과 Lee 등(2000), Hong (2001), Park(2002), Park, Kim, Chang, Kang과 Chun(2003)의 소득이 많을수록 성 만족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성적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기가 쉬우며, 또한 손쉽게 의학적 치료를 받기도 쉽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출산횟수에 따른 성 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출산횟수가 1-2회의 경우가 출산횟수 3-4회 및 5회 이상의 경우에 비해 성 만족이 높았다. 이는 Chang(1989)의 자녀수가 2명 이하인 집단이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집단보다 성 만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 및 Hong(2001)의 자녀수가 2명 이하의 집단에 비해 자녀수가 3명 이상의 집단에서 성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 Lee 등(2000)의 초임부에 비해 경 임부가 보다 성 만족 평점이 낮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Jackson(1997)은 요실금이 있는 여성들은 당황 감 때문에 요실금에 대해 배우자와 의논하지 못하고 부부관계 도중의 요실금과 그에 대한 걱정으로 성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출산횟수가 많아질수록 비노생식기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요실금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출산 시 분만 외상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폐경관리 정도와 요실금, 성 만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폐경관리와 성 만족은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만족 도와 폐경관리와의 정 상관관계를 보고한 Yeo(2004)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Fuh, Wang, Lee, Lu와 Juang(2003)는 폐경 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된 증상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적절한 폐경관리는 빈 동지 시기가 부르는 갱년기에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성 만족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갱년기 여성들의 폐경관리, 요실금, 성 만족정도 등 특정변수를 중심으로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J시 및 J시 주변 농어촌에 거주하는 만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여성 15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 형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 수집은 2004년 1월 5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폐경관리를 잘할수록 성 만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폐경관리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성 만족 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갱년기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행하기 쉬운 폐경 및 성 관련 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 외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대상자의 수와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갱년기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여러 변수를 포함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eckman, N. J. (1995). An overview of urinary incontinence in adults : assessments and behavioral interventions. *Clini Nur Specialist*, 9(5), 241-274.
- Chang, S. B. (1989). *An analytic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who have had a hysterect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ang, S. B., Kang, H. S., & Kim, S. N. (1998). The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J Korean Acad Nurs*, 28(1), 201-209.
- Fuh, J. L., Wang, S. J., Lee, S. J., Lu, S. R., & Juang, K. D. (2003). Quality of life and menopausal transition for middle-aged women on Kinmen island. *Quality of Life Res*, 12, 53-61.
- Henderickson, S. L. (1981). The frequency of incontinence in women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n exercise program. *Issues in Health Care of Women*, 3, 81-92.
- Hong, S. S. (2001). *The effect of sociotropy-autonomy and sexual satisfaction on female marital satisfaction*.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Jackson, S. (1997). Female urinary incontinence symptom evaluation and diagnosis. *European Urolo*, 32, Suppl. 2. 20-24.
- Kang, G. J. (1996). *A study on stress urinary incontinence of community residing elderly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N., Chang, S. B., & Kang, H. S. (1997). Development of sexual satisfaction measurement tool. *J Korean Acad Nurs*, 27(4), 753-764.
- KNSO (2004). *Mortality Table of 2002 Year*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Lee, Y. S. (1994). *Effects of circumvaginal muscle exercise in stress incontinenc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K.(1997). *A study on stress urinary incontinence of married women in Chongju*.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P., Kim, S. J., & Jeong, G. H. (2000). Pregnant women's attitude and satisfaction for sexuality. *J Korean Acad Nurs*, 30(5), 1292-1302.
- Lee, K. J., Chang, C. J., & Yoo, J. H.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limacteric symptoms, knowledge of menopaus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9(4), 400-409.
- Lim, H. J. (2001). The relationship among urinary incontinence, menopausal symptom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7(2), 157-168.
- McCormick, K. A., Scheve, A. A., Leahy, E. (1988). Nursing management of urinary incontinence in geriatric inpatients. *Nurs Clin North Am*, 23(1), 231-364.
- Park, E. O. (2001).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marital role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7(1), 80-92.
- Park, H. S., Lee, Y. M., & Cho, G. Y. (2002). A study on climacteric symptoms, knowledge of menopause, menopausal management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8(4), 521-528.
- Park, M. S. (2002). The relationship of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ith somatic symptoms, family related stress, spousal support and sexual satisfaction in the middle aged women. *J Korean Acad Psychiat Ment Health Nurs*, 11(1), 33-42.
- Park, Y. J., Kim, H. S., Chang, S. O., Kang, H. C., & Chun, S. H. (2003). Sexuality and related factors of postmenopausal Korean women. *J Korean Acad Nurs*, 33(4), 457-463.
- Penn, C., Lekan-Rutledge, D., Joers, A. M., Stolley, J. M., & Amhof, N. V. (1996). Assesment of urinary incontinence. *J Gerontol Nurs*, 22, 8-19.
- Song, A. R. (1997).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the management of menopause and it's eff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Song, A. R. (1999). A study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among climacteric women. *J Korean Acad Soc Nurs Edu*, 5(2), 315-331.
- Song, A. R. (2001-a).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cteric symptoms and management of menopause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Society Nurs Educa*, 7(2), 308-322.
- Song, H. J. (2001-b). *A study of urinary incontinence : its prevalence and its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Sung, M. H. (2002). A study on the level of knowledge of menopause and menopausal management of climacteric wom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6(1), 123-135.
- Temml, C., Haidinger, G., Schmidbauer, J., Schatzl G., & Madevsbacher, S. (2000). Urinary incontinence in both sexes : Prevalence rates and impact on quality of life and sexual life. *Neurol Urodyn*, 19, 259-271.
- Yeo, J. H. (2004). Correlational study on management of menopause,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Nurs*, 34(2), 261-269.